

# “택시도 못 살겠다”

## LPG 값도 급등 “운행 할수록 적자”

갑수족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업 계뿐 아니라 ‘준(準) 대중교통’으로 취급받는 택시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정부와 광주시에 요금 인상과 보조금 지급, 도급·아르바이트 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 요금 인상·정부 보조금 지급 등 요구

광주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 지난 3년간 LPG 소비자 가격이 36.7%(275원)나 올랐다. 이에 따라 하루 약 50리터를 사용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연료비 추가 부담이 3년 전에 비해 35만원을 넘어서었다. 5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1월 1천800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개인택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LPG가격은 지난 5월 리터당 940원이었지만 불과 한 달 사이 185원이 오른 1천255원으로 치솟았으며 7월 초 또 다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급격한 유가 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부진에 허덕이던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05년 오른 이후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때문에 택시사업조합이나 노동조합 등은 정부와 시에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 법인택시사업조합의 경우 지난 4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 용역 회사에 의뢰를 맡겼다. 지난 2005년 이후 제자리인 기본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수년간 담보상 태인 기본요금도 문제지만 가스값 폭등 때문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7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개인택시조합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LPG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해법을 주기 위해서는 세금 면제보다 유가 보조금 지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방문해 도급·아르바이트 택시 등 불·탈법 택시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최근 무자격 택시 운전기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 다시 유사조합 등은 정부와 시에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 법인택시사업조합의 경우 지난 4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 용역 회사에 의뢰를 맡겼다. 지난 2005년 이후 제자리인 기본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김정석 민주택시노조 본부장은 “업체별로 평균 30% 가량의 택시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판국에 누가 택시운전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내버스나 화물업계처럼 택시업계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여권발급 업무 구청으로 확대 대리신청제도 폐지

오는 16일부터 광주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사가 여권을 대신 발급받아 주던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9일부터는 여권발급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광주시는 12일 “그동안 시청에서만 해오던 여권 발급 업무를 오는 16일부터 5개 구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관련 민원인은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일반 여권의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거주여권, 관용여권, 긴급여권 발급 등의 업무는 지급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나 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여권 업무 수행기관이 구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수기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 정보통신 전시회

원도 남도초등학교(교장 최광렬) 어린이 36명이 광주 월곡초등학교(교장 김영남) 초청으로 1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08 광주 정보통신 전시회’를 찾았다. 어린이들은 프라모델게임 체험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체험했다. 광주 정보통신전시회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영산강 선박 운항 생태계 파괴 심각”

### 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검증 토론회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대표 기원주) 등은 12일 오후 3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무진관에 ‘영산강운하가 하천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영산강운하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선대 이성기(환경공학과) 교수가 ‘영산강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으며, 호남대 김철 교수, 목포해양대 신용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성기 교수는 “대운하를 건설함으로써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많

은 환경적인 문제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운하추진팀에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등 실제 예상되는 상황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운하는 선박이 운항해야 하므로 수로를 깊게 파서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는 즉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가두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또한 고여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으며, 선박이 운항하면

그 물은 식용,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하는 연료도 벵커C유를 사용하는데, 특히 엔진(디젤엔진)은 전속력 고속으로 운항해야 불완전 연소가 적지만, 운하에서처럼 저속으로 움직이면 불완전 연소로 다량의 매연이 발생하고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한반도운하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영산강 뱃길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전남도와 공개 토론회 등을 할 예정이다. /강필기자 kps@



## 세계와 지역 연결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 호남대학교 개교 30주년 ‘재창학 원년’ 선포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Glo-Cal·세계와 지역을 뜻하는 글로벌·로컬의 합성어) 대학으로.’ 호남대학교(총장 장병완)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국제화 및 실용화 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해 올해를 ‘재창학 원년’으로 선포했다. 30주년 기념식은 1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최불암(67), 장병태(75)씨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장기근속자 등 74명이 수상했다. <관련 인터뷰 20면>

호남대는 미래 비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세워 미래로, 꿈을 향해 세계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 12개국의 51개 자매결연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대는 신뢰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소통형 리더 및 실용학문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주력해 취업률 80%, 전국 10위권 내 경쟁력을 갖춘 학문 분야 5개 이상, 장학금 수혜율 50% 이상 달성, 전교생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대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논문집 및 총서 발간, 국제문화 페스티벌, 장애인스포츠 학술세미나 등 지역교류, 학술, 기념사업, 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30주년 UI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1978년 ‘인간화 교육, 민족화 교육, 현대화 교육’을 창학이념으로 설립된 호남대는 199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평가 최우수대학에 선정된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특성화대학으로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성필기자 camus@

### 전문계고 졸업 취업면 4년간 입영연기 가능

올해 지정된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체에 취업할 때 대학 진학자 신분에 준해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병력 수급 상황을 조절해 가며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해 최대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산업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습스

### 공익요원 공상 처리 갈등

광주시 남구청과 대체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남구청 사직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 민모(23)씨는 최근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는 바람에 어깨를 다쳐 수술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남구청에 공상 처리 민원을 세 차례 제기한 데 이어, 의가사 제반면, 남구청은 “다친 시집이 근

무 중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견관절 다방향불완전성(습관성 어깨탈골의 일종)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민씨는 사직동주민센터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민씨는 이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지난 4월 24일 어깨 관절을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씨 측은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은 남구청에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탓으로 공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구청의 입장은 정반대다. 견관절다방향성은 선천적인 질병이어서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자주 다친다는 점과 수술받은 정도의 업무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어깨를 다친 시집이 무거운 짐을 들어서 다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필기자 kps@kwangju.co.kr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화행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달신화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 [광주일보 광고]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보람과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 [보람상조 광고]